# 예수님의 인간 삼분법

## (마태복음 6:1~34)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간 삼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삼분법'
오늘의 본문은 주기도문을 포함하여 단락 별로 참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홈페이지 시즌 1과 특별설교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룬바가 있기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옥같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21~2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간 분류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그 구분을 예수님의 언어를 따라 말씀하자면 첫 번째는 "너희"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2인칭으로 언급이 되는 그룹입니다. 너 혹은 네가 등도 모두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라고 언급된 "위선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론에는 이외의 다른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세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인 너희의 그룹, 예수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위선자의 그룹,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의 그룹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에 대한 언급이 세 번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로 대표되는 일대일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너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말씀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을 보

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서는 구제에 관련하여 “너는 구제할 때에… / 네 구제함을…”이라고 말씀하셨고, 5~6절에서는 위선자들과 비교하시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도나 교인 혹은 선민과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너희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이는 곧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은 선민의 그룹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룹입니다. 성도나 교인이라 지칭한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 성도나 교인 혹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나 교인 혹은 선민일 수 있습니다. 일대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우자를 대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너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배우자와 대면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에서는 배우자를 제3자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대하는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라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마음에서 사업은 3인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너희, 이방인, 위선자의 세 가지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21~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1~22절을 보면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방이라면 눈은 등불입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에는 등불을 켜야 방은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잘못 되어 불이 꺼지면 방은 깜깜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보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삼분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은 마음이 가장 밝히 보는 대상입니다. 이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눈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최고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에서는 돈을 보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본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보물로 보는 눈은 나쁜 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밝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밝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서 돈을 가장 값진 대상으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대상은 본래 마음을 밝히는 기능이 없기에 삶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형통을 가장 밝히 본다면 자녀의 형통이 최고로 값진 보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녀의 형통은 마음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형통을 보물로 삼아 살아간다면 삶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밝히 보아야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볼 때에만 삶에서 어둠 즉 저주와 불행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는 보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선자와 이방인의 개념 또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보물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돈이 보물이었듯이 위선자들의 마음에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보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보물이고 자녀의 형통이 보물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보물이고 교인 숫자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들이 바로 위선자의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보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얻을 도구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한편 이방인 그룹은 하나님이 마음의 보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너희의 그룹, 위선자의 그룹, 이방인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세 그룹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25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물로 삼지 못하여 밝히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의 그룹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이들의 태어난 날과 외모와 부모와 집안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삶 또한 참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명론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방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중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든 말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 해도 될 생각과 말을 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계획하고 염려한다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도 계획하시고, 백합화나 장미가 언제 피고 시들지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참새나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삶에 대해 모르시는 날이 없고 계획하지 않으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룹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아처럼 여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고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 계획과 소원과 생각을 중첩시키며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은 방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새나 사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참새로 사자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써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의 인간은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고민하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십 년의 교육의 의미는 하

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심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온유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밝히 보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위선자의 그룹에 속한 상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마음의 보물로 여겼던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겼으며 외치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위선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인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위선자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우선적 관계에 두고 하나님을 제3자로 밀어내게 되면 모든 일은 위선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선자들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질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배설물이지만 화장실에 있느냐 안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움은 달라집니다. 배설물이 화장실 변기에 있다면 합당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싫을 수는 있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배설물일지라도 안방에 놓여있다면 보통 더러운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는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마음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안방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마음에 돈이 담겼으니 안방에 배설물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러움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형통, 건강이나 장수, 회사에서의 승진 등의 세상의 가치를 보물로 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러움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이어지는 여정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되면 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매 순간 나의 사건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 활성화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현재가 되는 일은 주술적인 일이 아닙니다. 조건대로 결과가 나오는 기계적 반응도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태승철!”하고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기에 나는 고통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나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물로 보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도 하나님을 보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도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가십니다. 나의 마음에 보물로 보게 된 하나님을 실제로 가지게 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주술적이고 기계적이거나 율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도나 교인이나 선민이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인 혹은 성도라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일대일의 관계에서 “너희”라고 부르실 사람들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모든 계획은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살게 됩니다.

너희 그룹과 위선자 그룹과 이방인 그룹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시작은 예외 없이 위선자 그룹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를 비롯한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이었던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하여 바라봄을 통해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보물로 볼 수 있고 보물이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도 위선자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한 위선자의 모습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십자가생활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물로 여기고 밝히 보는 것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을 값진 보물로써 바라보는 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대하든 우리는 제3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육체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3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제3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고계시며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그룹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자나 이방인의 그룹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모든 일을 내 책임 아래에 두었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기에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위탁할 대상으로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일대일 관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세상의 대상들은 제3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3자가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속속들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삼분법은 마음의 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대일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그림과도 같은 삶이 현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에 동승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의 시선을 드림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일대일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은 제3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